

국어의 부사화

민현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부사와 부사화의 기본 개념

부사화란 어떤 언어 단위를 부사적 기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부사는 용언 수식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어휘류라서 부사화는 ①단어가 부사로 변하거나 ②구, 절, 문장이 부사처럼 기능하도록 만드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①을 어휘적 부사화, ②를 통사적 부사화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부사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휘적 부사화

ㄱ. 빨리 가자. : 빨리(빠르+이) → 어휘적 부사화(파생법)

ㄴ. 또다시 말해 주오. : 또다시(또+다시) → 어휘적 부사화(합성법)

위 (1ㄱ)은 형용사 ‘빠르다’가 파생법이라는 어휘적 부사화의 절차로 부사가 된 예이고, (1ㄴ)은 ‘또’와 ‘다시’라는 부사가 합성법이라는 어휘적 부사화의 절차로 부사가 된 예이다.

(2)통사적 부사화

통사적 부사화는 부사어, 부사구, 부사절로 만드는 절차를 각각 구분할 수 있다.

① 부사어화

ㄱ. 학교로 간다. : 학교로(학교+로) → 부사어화

ㄴ. 그는 마당에 나무를 심었다. : 마당에(마당+에) → 부사어화

위 예들은 명사가 부사격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화한 예이다.

② 부사구화

ㄱ. 아주 대단히 추운 날씨다. : 아주 대단히 → 부사구화

ㄴ.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자. : 백두에서 한라까지 → 부사구화

ㄷ. 사람은 어려울 적에 서로 도와야 한다. : 어려울 적에 → 부사구화

위 (ㄱ)은 부사 연쇄에 의해 이루어진 부사구이다. (ㄴ)은 부사어 연쇄로 부사구화하였다. (ㄷ)의 ‘어려울 적에’는 관형어 ‘어려울’ 뒤에 시간 의존명사 ‘적’과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한 부사어가 통합하여 ‘어려울 적에’ 전체가 부사구로 기능하는 예이다.

③ 부사절화

ㄱ.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비가 와서 → 부사절화

ㄴ.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자. : 비가 오니까 → 부사절화

ㄷ. 철수는 비가 온다고 말했다. : 비가 온다고 → 부사절화(인용절화)

ㄹ. 서울은 비가 오고 있다. : 비가 오고 → 부사절화(동사구 보문화)

위 (ㄱ)은 ‘비가 오다’라는 문장에 ‘원인’ 의미의 연결 어미(부사형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비가 와서’로 변환 후 ‘길이 질다’라는 주절에 종속적으로 접속된 문장으로 전형적인 종속 접속문이다. 이 종속절은 주절 가운데로 이동하여 내포될 수도 있어 종속 접속과 내포라는 개념은 구분하기 어려운 범주이다.

(ㄴ)은 ‘비가 오다’라는 문장에 ‘이유’ 의미의 연결 어미(부사형 어미) ‘-니까’가 결합하여 ‘비가 오니까’로 변환 후 ‘우산을 가지고 가자’라는 주절에 종속적으로 접속된 문장으로 역시 종속 접속 방식을 보여 준다.

(ㄷ)은 인용절이 화법동사인 ‘말하다’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말하다’의 목적어 명사절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보어의 성격을 띤 보어절로 볼 수 있는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ㄹ)은 보조용언 구문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인데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을 서술동사구로 보아 단일문으로 보는지 아니면 보조용언을 상위문 동사로 보고 본용언을 내포문 동사로 보아 복문 구조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부사화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사절의 설정 여부로 그동안 학계에서는 부사절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 부사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설정하고 부사형 어미도 부정하는 체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우세하여 왔고 논쟁이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이익섭(2003)을 통해 그동안 부사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려 하고 부사형 어미와 종속접속 어미를 구별하려고 한 모든 논의들은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고 내포와 종속은 동일 개념으로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종속절(즉 내포절)의 하위분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일반문법학,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밝혔다. 우리의 논의도 이러한 인식 위에 서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2. 활용 체계와 문장 분류 체계

국어에서 부사절과 부사화의 복잡한 논쟁사를 다루려면 문장의 체계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주요 논자들의 문장 체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제시하면서 부사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최현배, “우리말본”(1937)

외술 최현배의 문법에서 부사화 문제를 둘러싼 부사절, 종속절에 대한 관계 설정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어미 활용 체계부터 보아야 한다(“우리말본” 323~326쪽 참고).

(1) 움직씨의 끝바꿈

종지법(마침법): 서술형(배품꼴)/의문형(물음꼴)/명령형(시킴꼴)/칭유형(피임꼴)

자격법(감목법): • 명사형 : -ㅁ, -기
• 관형사형 : -을, -는, -은
• 부사형 : -아, -게, -지, -고

접속법(이음꼴): 매는꼴(구속형), 놓는꼴(방임형), 벌림꼴(니열형), 풀이꼴(설명형), 견준꼴(비교형), 가림꼴(선택형), 잇달음꼴(연발형), 그침꼴(중지형), 더보탬꼴(첨가형), 더해감꼴(益甚形), 뜻함꼴(의도형), 목적꼴(목적형), 미침꼴(도급형), 되풀이꼴(반복형)

외술은 자격법의 부사형 어미와 접속법의 어미들을 구별하는 분류를 제시함으로써 부사절과 종속절을 구별하여 이를 둘러싼 혼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접속법 어미는 위와 같이 14개 유형을 제시하였고, 부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에 보조용언 앞의 본용언에 붙는 ‘-아, -게, -지, -고’만으로 제한

하고, 형용사의 경우는 보조용언 구문이 아닌 일반 형용사의 접속구성에 붙는 ‘-아, -게, -지, -이’를 들고 있다.(“우리말본” 502쪽).

(2) 부사형 어미

- 동사의 부사형 어미: 먹어 본다, 먹게 된다, 먹지 말자, 먹고 보자.
- 형용사의 부사형 어미: 너무 높아 보인다. 백화가 찬란하게 피었다.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우리는 계획 있이
행동하여야 한다.

위에서 파생접미사 ‘-이’를 형용사의 부사형 어미로 본 것이 주목되는데 국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익섭(2003: 164)은 이것을 활용형으로 보기도 한다.

‘꽃이 찬란하게 피었다’의 ‘-게’를 부사형 어미로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동사 구문의 경우도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동사 구문의 ‘-게’는 우리말본에서 부사형 어미나 접속법 어미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형용사의 ‘찬란하게 피었다’와 비교할 때 일관성이 없다.

(3) 아이가 울게 놔둔다. 집에서 쉬게 허락한다. 원료를 얻게 주문한다.

위 예의 ‘-게’ 구성은 외술 문법에서 접속법에 소속시킨 ‘-도록’과 의미가 같아 대치할 수 있으므로 ‘-게’를 접속법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외술 문법에서 ‘-게, -없이’ 구성만을 협소하게 부사절로 보는 점(후술 참조)을 고려하면 부사형 어미로 처리할 수도 있어 이런 모호한 처리는 부사형과 접속형의 혼란스러운 단초를 보여 준다.

구분할 필요가 없는 부사형과 접속형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어미 체계와 문장 체계로 혼란이 전이되어 나타난다. 최현배(1975: 817~853)는 문장을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고 복문에 포유문, 병렬문, 연합문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고 포유문에는 부사절, 관형절, 체언절, 용언절이라는 것을 두었다.

여기서 부사절과 종속절을 별개로 인식하는 잘못된 전통이 시작되었다.

(4) 외술의 문장 분류

① 홑절(단문)

- ② 겹절(복문)
- 가진 월(포유문)
 - 어찌마디(부사절),
 - 매김마디(관형절)
 - 이름마디(체언절)
 - 풀이마디(용언절)
 - 별린 월(병렬문): 대등절
 - 이은 월(연합문): 종속절

우리 문법학계에서 복문을 흔히 내포와 접속의 2분법으로 설명하는 발상도 여기서부터 싹터 온 것이니 문장 체계 혼란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외술은 부사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려고 하면서 ‘-게’로 유도된 구문과 ‘없이’처럼 파생접미사 ‘-이’로 유도된 구문의 단 두 가지 유형을 부사절로 설정하고 있다(최현배 1975: 829~830).

(5) (ㄱ) 그 사람이, 낮이 따뜻하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ㄴ) 큰 물머리가, 사람이 건디지 못하게, 밀어왔다.

(ㄷ) 모래벌이, 눈이 부시게, 희다.

(ㄹ)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위에서 ‘-게’, ‘-이’ 삽입절을 어찌마디(부사절)로 설정함은 ‘-게, -이’를 부사화소로 본 때문이다. 그런데 (4)의 ‘-게’ 삽입절은 ‘낮이 따뜻하게,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처럼 앞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소위 종속절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ㄹ)의 ‘소리도 없이’는 그동안 대부분 삽입절로 보았으나 부사구로 보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없이’는 부사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데 삽입 부사절로 보면 ‘없이’가 서술어가 되어야 하고 ‘-이’를 서술어미로 보

아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 국어에 있을 수 없는 기술을 하게 되어 국문법 어미와 접사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부사 ‘없이’에 유도된 부사구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솔은 종속절의 예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6) 종속절을 이끄는 9개 어미 유형

- ㄱ. 놓는꼴: -마는, -되, -으나, -으려니와, -은들
 언니는 부지런하지마는, 아우는 게으르다.
- ㄴ. 매는꼴: -면, -은들, 1) -으니, -은즉, -으므로, -아, -아서, -아야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ㄷ. 풀이꼴: -은데, -는데, -되²⁾
 비가 오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 ㄹ. 잇달음꼴: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ㅁ. 견줌꼴: -거든
 새도 양육의 은혜를 알거든,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를쏘나?
- ㅂ. 더보핍꼴: -을뿐더러
 비가 올뿐더러, 바람조차 분다.
- ㅅ. 더해감꼴: -을수록
 비가 올수록, 보리가 잘 자라오.
- ㅇ. 미침꼴: -도록
 밤이 새도록, 나는 공부를 했다.
- ㅈ. 그침꼴: -다가

1) 최현배(1975: 836)에서는 동일 형태 ‘-은들’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ㄱ. 내가 간들 일이 되나?(놓는꼴) ㄴ. 내가 갔던들, 일이 되었겠다.(매인꼴)
(ㄴ)은 어색한 예문이라 적합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2) 역시 최현배(1975: 836)에서 ‘-되’를 두 가지로 처리한 사례이다.

ㄱ. 얼굴은 나쁘되, 맘씨는 좋다.(놓는꼴) ㄴ. 마음은 비가 오되, 썩 많이 온다.(풀이꼴)

비가 오다가, 눈이 온다.

그런데 접속법 어미에서 ‘별림꼴, 가림꼴, 뜻함꼴, 목적꼴, 되풀이꼴’의 경우가 진술한 종속절의 9개 어미 유형에서는 빠져 있다. 가림꼴 ‘-거나, -든지’나 되풀이꼴 ‘-락’이 대등 구성에 나타나는 어미이므로 제외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림꼴 ‘-며, -서, -고’, 뜻함꼴 ‘-으려, -고자’, 목적꼴 ‘-으리’는 충분히 종속절 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빠져 우연한 누락인지 고의적 누락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요컨대 외술 문법은 ‘-게, -없이’로 유도되는 것은 부사절로 보고 위와 같이 다양한 어미로 유도되는 것은 종속절로 보아 부사절과 종속절을 억지로 구분하는 무리를 두었고 기준의 설명이 명료하지 못하다. 최현배(1975: 838~846)는 이에 대한 장황한 고민을 밝혀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에서 이은월이라고 하여서 겹월의 한 갈래로 잡기까지는 오랜 시일을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영어 말본, 일본 말본 등에서는 보통으로 겹월을 둘로 갈라서 가진월과 별린월의 두 가지로 하고, 위에서 내가 이은월이라고 한 것을 가진월에 넣으며 그 앞마디를 가진월의 어찌마디로 봄이 예사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그러한 전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 가지 가름을 하여서 위와 같이 가진월과 별린월 밖에 다시 이은월을 더하였나니 그 까닭은 대강 다음과 같으니라…….(후략)”

이처럼 고민을 밝히고 부사절과 종속절을 구별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요점은 “앞마디가 뒷마디에 대하여 그 조건은 될지언정, 결코 그 꾸밈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우리말본” 840쪽)라고 ‘조건’과 ‘꾸밈’을 구별하는 매우 기이한 주관적 해석을 하면서 부사절과 종속절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술은 주관적 해석으로 부사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부사절의 범위를 ‘-게, -이’ 유형으로 축소하여 기술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의 학교문법도 여전히 그러한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따라 온 것이다.

2.2. 허 응, “국어학”(1983)

외술 문법은 부사형 어미도 보조용언 구성의 ‘-아, -게, -지, -고’나 ‘-이’로 제한하고 부사절도 ‘-게, -없이’에 의한 경우로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여 후대에 부사절과 종속절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후대 학자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외술의 영향을 이어받은 허응(1983)도 그런 처리를 보여 준다.

(7) 허 응(1983, “국어학”),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 ① 한 자격법
- ┌ 마침법(의향법):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피임법
 - └ 이음법
 - ┌ 제약법, 불구법, 나열법, 선택법, 의도법,
 - ├ 전환법, 비교법, 동시법, 설명법, 비례법,
 - └ 가치법, 더보탬법, 힘증법, 연결법

- ② 두 자격법
- ┌ 이름법
 - ├ 매김법
 - └ 어찌법: -도록, -게, 듯(이)

허응(1983)에서는 어찌법과 이음법을 분리한 점에서는 외술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으며 외술의 접속법을 이음법이라 부르고 역시 1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14개 유형은 외술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으며 외술의 체계를 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다. 가령, 외술은 접속법과 별도로 보조용언 앞에 오는 본용언의 활용형 ‘-아, -게, -지, -고’를 부사형 어미로 설정하였지만, 허응은 이들 부사형 어미를 이음법으로 옮겨 와 연결법이란 이름으로 설정하였는데 그것도 ‘-게’는 제외시키고 ‘-아, -지, -고’만 설정한 점이 다르다. 그런데 제외한 ‘-게’와 허응의 어찌법에 나오는 ‘-게’는 동일한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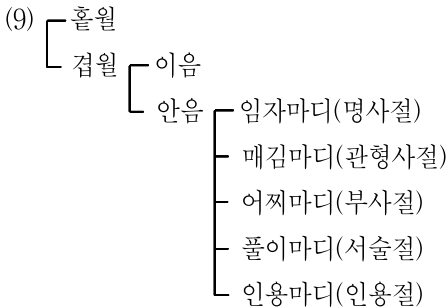
가 아니라서 결과적으로 외술의 부사형 어미 중에 ‘-게’는 허용에서는 체계상 사라진 것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외술의 부사형 어미를 연결법으로 옮긴 이유를 허용(1983)에서 보조용언은 선행하는 본용언을 앞으로 수식하는 것인데 본용언 활용형 ‘-아, -게, -지, -고’를 부사형으로 본다면 본용언이 보조용언을 뒤로 수식하는 것이 되어 문법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술의 부사형 어미를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을 연결해 주는 연결법으로 처리한다. 이런 태도는 1985년의 통일 학교문법의 논리에 기여하여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타난다.

한편, 허용의 어찌법 곧 부사형 어미는 외술의 부사형 어미와 전혀 달라져 ‘-게, -도록, -듯(이)’만을 설정한 것이 특이하다. 허용(1983: 238)에 나오는 다음 예들을 외술에서 (8ㄱ)은 접속법의 미침꼴 어미로 처리하고, (8ㄴ)은 형용사의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며, (8ㄷ)은 띄어 쓰고 의존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 (8) ㄱ. 혀가 닳도록 타일렀다. : 외술은 접속법 미침꼴
 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외술은 형용사 부사형
 ㄷ. 돈을 물 쓰듯이 한다. : 외술은 의존명사(‘쓰 듯이’로 띄어쓰기 함)

허용의 문장 체계는 성분 체계에서부터 외술과 달라졌는데 이는 문장 체계와 밀접하다. 허용의 문장 성분은 임자말, 부림말, 위치말, 방편말, 견중말, 어찌말, 인용말, 홀로말로 구분하는데 허용의 성분 체계에서는 외술의 어찌말(부사어)이 의미에 따라 위치말, 방편말, 견중말, 인용말, 어찌말로 세분된 것이 특징이라 부사어의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제 이러한 어미 활용 체계에 따라 문장 체계도 다음과 같은 체계를 보여 준다.



위와 같이 이음(접속)과 안음(내포)의 개념을 구분하고 이음에는 대등접속이나 종속접속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안음에는 어찌마디(부사절)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분류는 여전히 외술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부사절을 ‘-게, -없이’에 의한 것으로 매우 좁게 보았던 외술보다는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를 부사절로 설정하고 있어 부사절의 외연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외술의 부사절과 비교할 때 다음 ①에서는 ‘-없이’ 외에 ‘달리, 같이’ 유형을 추가하였고 ②에서는 ‘-게’ 외에 ‘-도록, -듯이’를 추가하였으며 ③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가 유도하는 절을 부사절로 보는 태도를 취한 것이고 ④에서는 ‘시피’를 특수조사라 하고 이것이 붙은 절을 부사절로 처리한 것이다(허웅 1983: 274-275).

(10)

① 파생어찌씨에 의한 어찌마디: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없고 정신력 없이도 살 수 없다.

옥과 같이 맑은 물

이것은 그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② 풀이씨의 활용에 의한 어찌마디:

구름의 한 조각이 사라지듯 사람의 목숨도 사라진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혀가 닳도록 타일렀다.

③ 매인이름씨에 의한 어찌마디:

그날 밤 그는 자는 듯이 죽어 갔다.

뿌리가 달린 채로 나무를 가져오너라.

그 사람 하는 대로 두어라.

그는 못 본 척 눈을 돌렸다.

④ 특수토씨에 의한 어찌마디: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위 ③과 같이 의존명사에 의한 부사절은 최현배(1975: 831~2)에서 예시한 다음 사례와 같은 유형이다.

(11) ㄱ. 나도,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했소.

ㄴ. 이 길이 인제, 사람이 다닐 만큼 되었네.

ㄷ. 이 담배는, 향기가 좋은 이 만큼, 값이 비싸다.

외솔은 이들을 “어찌마디는 아니요 그저 마디를 포함한 어찌말이라고 함이 옳을 것이니라”고 부사절로 보기를 주저하고 부사절 아닌 부사어로만 볼 것을 주장한 것과 달리, 허웅은 진일보하여 “매인이름씨의 ‘듯이, 채로, 대로, 척, 양은 앞의 매김마디(관형절)와 더불어 한 어찌마디(부사절)를 만든다”고 ‘관형절+의존명사’ 구문을 부사절로 보도록 한 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그런데 국어에는 다음 ①, ②처럼 ‘관형절+(의존)명사’ 구문이나 ‘명사절+(의존)명사’ 구문이 부사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활발하여 이들 전체를 허웅(1983)처럼 부사절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사절은 관형절과

명사절 다음에 부사성 의존명사(또는 시간 상황 명사)가 오는 경우로 특수한 부사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은 ‘명사절+부사격조사’ 구성이 부사적으로 쓰여 부사절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이는 ‘학교로, 학교에’ 같은 것이 ‘명사+부사격 조사’ 구성이 되어 부사어로 기능함과 같은 논리이다. ④는 ‘명사절+위하어’ 같은 것이 부사적으로 쓰인 예로 이들도 전체를 부사절로 볼 만한 경우이다.

(12)

① ‘명사절 + (의존)명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부사절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비가 오기 전에, 빨래를 걷어라.

② ‘관형사절 + (의존)명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부사절

비가 오는 동안, 거리를 헤맸다.
비가 올 때, 종로를 걷고 있었다.
비가 온 후, 공기가 깨끗해졌다.
비가 온 이래, 가뭄이 풀렸다.
비가 오는 듯,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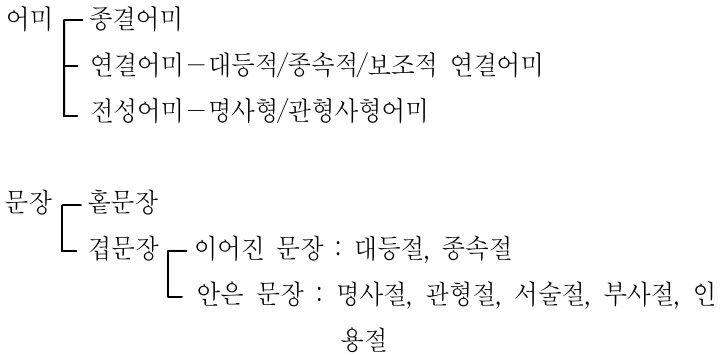
2.3. “통일 학교문법”, 남기심·고영근(1985)

외솔 문법 이래 대부분의 문법서들은 외솔의 전통을 따라 부사형 어미를 축소하고 부사절의 범위도 종속절과 분리하여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85년의 통일 학교문법과 그 이론서인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통일문법에서는 아예 부사형 어미가 사라지고 부사절은 허용(1983)의 체계에 가깝다. 부사형 어미라는 명칭이 없는 부사절 시대가 열린 것이다.

부사형 어미는 외솔 문법에서 ‘-아, -게, -지, -고, -이’를 두었고, 허용

(1983)에서는 이들을 연결어미로 보내고 대신 ‘-게, 도록, 듯이’가 이끄는 절을 부사절로 보았는데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게, -도록, -듯이’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로 볼 수도 있고 연결어미로도 볼 수 있는 이중성이 있음을 언급하고는 “이 문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1985: 381)“아직 단정하기 어렵다”(1985: 395)라고 유보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미 활용 체계를 제시하여 부사형 어미 자체를 폐지하고 보조적 연결어미로 봄으로써 부사형 어미가 국어에서 완전히 퇴출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고 부사절을 ‘-없이, -달리’류로 제한하였다.

(13) 남기심·고영근(1985, 1993)



그 결과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의 ‘아름답게’를 외솔 문법에서는 그나마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던 것을 부사형 어미를 없애다 보니 ‘-게’는 다음과 같이 성분부사, 문장부사, 종속절 연결어미의 기능을 보여 주므로 여러 이름을 주기보다는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하나의 이름만 주고 환경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자고 하였다(남기심·고영근 1993: 158~9).

(14) 가. 하늘이 맑게 개었다.(성분부사)

나. 이상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다.(문장부사)

다. 바깥이 잘 보이게 창문을 활짝 열어라.(종속절 연결어미)

그 결과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의 ‘아름답게’를 부사어라고 하면서도 ‘-게’를 부사형 어미로 부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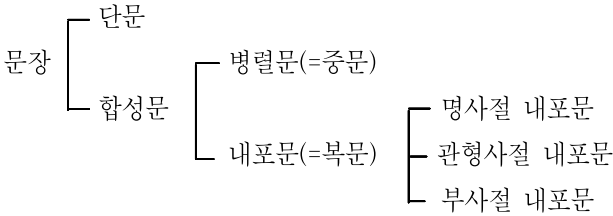
2.4. 남기심(1985), 이익섭·채완(1998), 이익섭(2003)

부사형 어미와 부사절의 이해를 바르게 하기 시작한 것은 남기심(1985)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종래의 종속접속어미들을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태도가 나타나고 이들 부사형 어미로 이루어지는 종속절을 내포절이며 부사절로 보는 태도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서구 영문법의 문장 분류 체계에 대한 깊은 인식만 가지고 있었어도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로소 남기심(1985)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고 부사절이 종속절이라는 견해는 유현경(1986), 김영희(1991), 남기심(2001), 이익섭·채완(1999)에서 계속 나타난다. 최근에 나온 이익섭(2003)은 그동안의 부사절, 종속절, 접속이란 용어의 오염된 사용과 부사형 어미의 설정 여부를 둘러싼 혼돈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어미 체계와 문장 분류 체계를 질게 덮었던 혼돈을 걷어내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문법학계를 개안(開眼)하게 하였으니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언어의 보편성에 따라 모든 언어의 문장구조를 동렬구조(co-ranking structure)와 연쇄구조(chaining structure)로 나눌 때 국어는 절 연쇄의 연쇄구조 언어에 속한다. 연쇄언어는 SOV 구조를 가지고 문말동사(文末動詞)와 문중동사(文中動詞)의 형태가 다르다. 문중동사의 어형은 알타이 어학에서 부동사(副動詞, converb)라고 하는 것과 같다.
- ② 일반언어학이나 영문법의 전통에서는 문장을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고 복문은 coordination(대등접속)과 subordination(종속접속)으로 나눈다. 대등접속은 conjoining(병렬/접속)이라 하고, 종속접속은 embedding(내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종속접속절 곧 내포절은 다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로 나눈다. 그동안 용어 사용의 오해와 오염이 커서

혼란이 적은 병렬문(compound sentence=coordinate sentence)과 내포문(complex sentence)이라는 용어로 조정한다면 문장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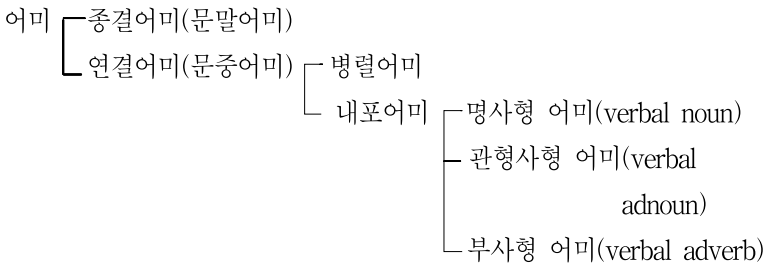


이 분류에서 인용절과 서술절은 설정하지 않는다. 인용절은 독립절로 설정될 성질이 못되고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로나 ‘말하다’류 동사의 목적어 명사절로 편입시켜야 한다.

서술절은 ‘서술어’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같은 품사성의 명칭이 아니라 독립절로의 자격이 없으며 이중주어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문장 체계에 따라 어미 활용 체계도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3. 대등절도 부사절인가?

이익섭(2003)을 통해 부사절 문제는 그동안의 혼란이 말끔히 정리가 되었지만 국어에서는 대등절도 부사절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대등절도 주절을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면 부사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분명히 국어에는 대등절 어미 ‘-고, -나[-지만-, -은데], -든지’ 따위가 다음 (4)의 ↔ 표 우측 예문들처럼 종속절 어미로도 나타나는 데 고민이 있다.

- (17) 가. 산은 높고, 물은 깊다. ↔ 그가 가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나. 산은 낮으나[낮지만, 낮은데], 계곡은 깊다. ↔ 산은 높으나[높지만, 높은데], 등반대는 떠났다.
 다.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한다. ↔ 어디에 가든지, 배움을 충실히 한다.

위 ↔의 좌우측 어미를 대등성, 종속성이라는 의미에 따라 구별함은 가능하다. 종속절은 주절 속으로 내포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측 종속절만 부사절로 보고 좌측 대등절은 부사절로 보지 않는다면, 이들 동일한 어미들에 대해서 종속절에서는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가 되고 대등절에서는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가 아니라고 하는 이원적 기술을 하게 되어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즉, 동일 어미 형태를 ‘종속’과 ‘대등’이라는 다소 주관적이기 쉬운 의미 기준에 따라 강제로 분리 기술하는 것이 되어 문법 기술에 불편하고 논리적으로 불균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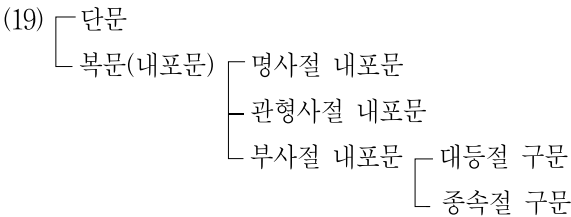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같은 예문(남기심 1985)도 의미 해석상 “한편으로 바람이 불고 또 한편으로는 비가 왔다”라는 뜻의 대등접속으로 볼 수도 있고, “바람이 불고 난 후에 비가 왔다”는 뜻의 종속접속으로 구분할 수

도 있지만 ‘-고’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보면 간단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대등절 구문이 부사절로 볼 수 있음은 다음의 접속부사 치환 논리로 가능한데 이는 위 (17)의 좌측 대등절 구문이 다음 [] 안의 접속부사 연결 구문으로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8) 가. 산은 높다. 그리고 물은 맑다.
 나. 산은 낮다. 그러나[그렇지만, 그런데] 계곡은 깊다.
 다. 산에 간다. 그러든지[또는, 아니면] 바다에 간다.

따라서 (17)의 소위 대등접속어미는 부사성을 속성으로 하는 접속부사 즉 부사로 치환되므로, 대등 접속어미가 부사성을 속성으로 하는 부사형 어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어의 이런 특성을 강조한다면 국어의 어미 활용과 문장 체계는 재조정해야 한다. 그것은 부사절 밑에 대등절과 종속절 구성이 소속되는 다음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체계는 세계의 개별 언어들과 비교할 때, 병렬문과 내포문으로 보는 2분법을 부정하고 내포문 밑의 부사절에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을 두는 방식이 되어 언어보편성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동사와 형용사가 그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품사로 나누듯 대등절 구문과 종속절 구문도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구분될 차이도 있으므로 구분하는 것이 언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 하겠다(이익섭 2003: 151).

4. 결론

그동안 종속절과 부사절의 동질성 여부를 다루는 논의는 수없이 많았고 이익섭·임홍빈(1983), 이익섭(1986)에서는 부사절과 종속절의 구별 논의의 어려움을 밝히면서 부사절과 종속절은 구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논의의 지향점은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논의들은 이익섭·임홍빈(1983), 남기심(1985), 유현경(1986)을 거쳐 이익섭·채완(1999), 안명철(2001), 이익섭(2003)에 이르고 있다. 이들 논의의 요점은 종속절은 부사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나온 이익섭·채완(1998)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모두 부사형어미로 기술하고 종속절도 부사절로 단정하는 혁신적 기술을 함으로써 결국 전통 영문법 체계와 같은 보편적 기술로 복귀하였다. 이에 따라 이익섭·채완(1998)에서는 문장의 종류도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하고,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병렬문)만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였다. 결국 문장 합성의 종류를 병렬문과 내포문으로 한 것이다. 이익섭(2003)은 그동안 국어 문장론을 덮고 있던 혼미를 진단하고 최현배의 ‘우리말본’ 이래 60여 년간 혼미했던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문법 논리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고영근(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방향 탐색’, “우리말 연구 15집”, 우리말학회.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말 10”, 연세대.
- 남기심·고영근(1985, 개정 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서정수(1996), “국어 문법”(개정판), 서울: 한양대 출판부.
- 안명철(2001), ‘부사어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어문연구 29-3”,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 양인석(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서울대.
- 왕문용(1997), ‘대등접속문은 국어에 과연 있는가’, “어문학보 20”, 강원대.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서울: 개문사.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 윤평현(1989), “국어 접속 어미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이관규(1990), “국어 대등구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이은경(1995),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이은경(1998), ‘접속어미의 통사’, “문법 연구와 자료”, 서울: 태학사.
- 이익섭(1986, 개정 2000), “국어학개설”, 서울: 학연사.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서울: 태학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익섭·채 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최재희(1991), “국어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최재희(1997). ‘국어 종속 접속의 통사적 지위’, “한글 238”, 한글학회.
- 허 웅(1983), “국어학”, 서울: 샘문화사.
- Martin, Samuel E.(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okyo: Charles E.
Tuttle Co.
- Mattews, P. H.(1981),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c(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am Collins Sons & Co Ltd(1990, 1999),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London: William Collins Sons & Co Ltd.